

# 慶北 東南 地域의 魚類 名稱語 研究

孫 炳 胎\*

<차 례>

I. 들머리

III. 慶北 東南 方言 魚類 名稱語의 類型

II. <茲山魚譜>의 漢字魚名과 借字

IV. 마무리

御名

## I. 들머리

인류는 이 지구상에 나타난 이래 수렵·어로·채취 생활을 하면서 어류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면서 살아왔다. 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경북 동남 지역은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 동물 분류에서 어류라 함은 연골어류와 경골어류를 말한다. 민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통틀어서 민물고기 또는 淡水魚,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를 바닷물고기 또는 海水魚라고 부른다. 담수어는 피라미와 같이 일생동안 담수에서만 생활하는 어류를 순수담수어 또는 1차 담수어라 하고 뱀장어, 연어, 은어와 같이 바다와 민물을 내왕하며 사는 어류를 2차 담수어라 한다.

방언 어류명은 문자화 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구전되어 와서 강한 보수성과 사회성을 지닌 物名語로서 국어의 어원, 음운, 형태 등의 개별 언어 연구에 산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어류명칭어는 어류의 형태, 습성, 색, 질감, 광택, 대소 등을 고려하여 명명되고 있다. 어명이 많이 기록된 문헌에는 '물고기의 할아버지'라 불리는 서유구가 지은 <난호어목지>를 비롯하여 <東國輿地勝覽>, <雅言覺非>, <茲山魚譜>, <東醫寶鑑>, <五洲衍文長箋散稿> 등이 있다. 이들 중에는 대상이 다른 別魚를 동일어명으로 기록하고, 동일어명의 기록이 별종의 어류를 나타내는 것이 더러 있다. 예를 들면, 錦鱗魚 對 鰻魚, 鱔魚 對 葦魚는 동일어류인지 별개어류의 대립어인지 잘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 어류명칭어의 연구는 森爲三(1934)의 朝鮮産 魚類 目錄 작성, 최기철

(1973)의 담수어의 지리적 분포, 김익수(1980), 전상란(1983) 등이 있는데 모두가 자연과학적 연구이다. 다만 홍순탁(1963)이 <자산어보>와 흑산도 방언을 대조 연구한 것이 있을 뿐이다. 최근 들어 <物名攷><sup>1)</sup>, <群都目><sup>2)</sup>, <譯語類解>, <同文類解><sup>3)</sup> 등과 같은 분류어휘집을 연구하면서 어류명을 언급하고 있고, 여찬영(1994)에서 물고기의 명칭어에 대해 구별표지를 이용하여 층위별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어류방언 학자들에 의해서 어류방언이 체계화 되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어류명에 대한 방언을 조사, 기록, 연구하는 방언학자들이 많아야 하며 그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어류방언학자는 물고기와 그 명칭어의 고리를 찾고,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를 복원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어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간어원은 본능적이며 직감적인 인간 활동의 하나이며 그것은 실질적으로 언어변화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본고는 경북 동남 지역에서 70% 이상 방언으로 응답하는 어류 명칭어의 자료<sup>4)</sup>를 몇 가지 접사의 유형별로 제시하고 그 유래와 조어법을 살펴 언어지리학과 관련하여 어류 명칭어의 단어족을 풀어나가는데 목적을 둔다.

## II. <茲山魚譜>의 漢字魚名과 借字魚名

<茲山魚譜>는 丁若鏞이 영·정조년간의 16년 동안 유배지 흑산도에서 한 昌夫를 만나 함께 묵으면서 물고기의 방언과 형태를 기록하고 약성을 언급한 3권 1책의 고문헌으로, 제 1권에는 有鱗魚類 73종, 제 2권에는 無鱗魚類 42종, 제 3권에는 雜類 40종을 제시하고 있다. 魚名은 중국의 典籍에서 발췌하여 그 어원을 싣고 우리 고유 어휘를 借字表記하거나 漢譯해 두고 있다.

이 중에서 한자 어명에 대해 차차 속명이 붙은 몇 가지를 들어 解讀하여 흑산도 지역 어류명칭어의 유형을 먼저 알아 보고자 한다.

\* 영남대학교 강사

- 1) 신경철(1984) 참조.
- 2) 조선말기의 군도목 어휘는 음운변화 이전의 어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 3) 유해류 어휘 연구는 남광우(1962), 홍윤표(1985), 송기중(1985), 박재용(1994) 참조.
- 4) 필자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영덕('90-92), 울진('93), 포항('94-96) 지역에 근무하면서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특히 영덕 지역(노물리, 창포리, 대부리, 경정리, 축산) 학생들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시한다.

## 2.1 有鱗魚類

石首魚：大鮑 俗名 艾羽叱(애우지), 鮑魚 俗名 民魚(민어), 巖峙(암치, 민어새끼)  
 鮑水魚 俗名 曹機(조기) 甫九峙(보구치, 흰조기) ‘석수어’는 머리에 흰 돌이 두 개씩 들어 있다는 데에 그 명명의 연유가 있다. 大鮑의 속명 ‘艾羽叱’의 ‘叱’은 ‘즐, 질, 지, 사, 자, 스, 즈’ 등으로 해독되나 여기서는 접미사 ‘-지’로 해독된다.<sup>5)</sup> ‘民魚’는 한자어명 ‘鮑魚’에 同音牽引된 것이다.

鱸魚：鱸魚幼者俗呼甫鱸魚(보로어)又呼乞德魚(걸덕어, 갈따구) ‘甫,-’는 어린 물고기에 붙는 접두어이다. 四鰓魚(사새어)는 아가미가 네 개이다.

鱗魚：鱗魚 俗名 蠡峙魚(잠치어, 준치어) ‘蠡’은 ‘준’음과의 유사에 의한 차차 표기이다.

強項魚：強項魚 俗名 道尾魚(도미어, 돔), 黑魚 甘相魚(감상어), 骨道魚 俗名 多億道魚(다억도어, 닥도어, 닥도미) 음절이 길어서 ‘尾’를 생략 표기한 것이라 여겨진다.  
 赤魚 俗名 剛性魚(강성어), 癩魚 俗名 壟伊魚(옹이어, 머리뒤에 흑이 달려 있다)

碧紋魚：碧紋魚 俗名 臯登魚(고등어), 假碧魚 俗名 假古刀魚(가고도어, 가고등어), 海碧魚 俗名 拜學魚(배학어)

鱸魚：鱸魚 俗名 秀魚(수어, 승어), 登其里(등기리, 승어의 작은놈), 毛峙(모치, 승어의 가장 어린놈)亦呼毛當又呼毛將(‘모당’, ‘모장’에서 ‘ㄷ’과 ‘ㅈ’이 혼용되고 있다)

靑魚：食鯖 俗名 墨乙蟲(묵을충) 산란할 줄 모르고 단지 먹을 것만 구하고 있어, 어류의 속성에 의한 명명이다. 假鯖 俗名 禹東筆(우동필, 우동피리) 몸이 둥글둥글하고 살이 포동포동 쥘 데에 명명의 연유가 있다.

鯊魚：膏鯊魚 俗名 其廩鯊魚(기름사어, 기름상어) 기름이 많고 겹질이 모래 같다는 데 명명의 연유가 있다. 眞鯊魚 俗名 參鯊(참사어, 참상어)

黔魚：黔魚 俗名 黔處歸(검처귀, 검처기) 薄脣魚 俗名 發落魚(발락어, 볼락) 배가 볼록한 것을 흉내내어 명명한 의태어이다.

鱧魚：鱧魚 俗名 廣魚(광어) 別名 比目魚(비목어), 小鱧 俗名 加暫魚(가잠어, 가자미), 長鱧 俗名 鞵帶魚(혜대어) 고기 모양이 가죽신 바닷과 비슷하다. 또한 한쪽 끝이 없어서 半面魚라고도 한다.<sup>6)</sup>

5) 자세한 논의는 이은규(1993:11), 손병태(1996:25) 참조.

6) 越王은 물고기를 다 먹지 않고 반쯤 버렸는데, 그것이 물속에서 다시 고기가 되어서 한 쪽면이 없는 ‘반면어’가 되었다는 민간어원설이 있다.

小口魚：小口魚 俗名 望峙魚(망치어)

魴魚：魴魚 俗名 葦魚(위어, 응어) 이 고기는 날카로운 칼 모양이고 길고 얇게 생겼다. 海魴魚 俗名 蘇魚又名伴倘魚(반당어, 밴댕이) 날카로운 칼모양 같고 길다.

靑翼魚：靑翼魚 俗名 僧帶魚(승대어) 푸른색 날개를 부채처럼 폈다 오므렸다 한다는 데에 그 명명의 연유가 있다. 灰翌魚 俗名 將帶魚(장대어)

耳魚：耳魚 俗名 老南魚(노남어, 노램이), 鼠魚 俗名 走老南(주노남, 쥐노램이) 머리에 쥐같이 두 귀가 있다고 해서 '주/쥐'를 취하고, 노린내가 난다고 하여 '노남'을 붙인 것이다. 즉 '주/쥐+노남'에 접미사 '-이'가 붙어 '주/쥐노남이, 쥐노램이, 쥐놀래기' 등으로 불린다.

大頭魚：大頭魚 俗名 無祖魚(무조어) 입이 크고 어미를 잡아 먹는데에 그 명명의 연유가 있다.

扁魚：扁魚 俗名 瓶魚(병어) '瓶'은 '扁'에서 동음전인되어 '병어'로 명명된 것이다.

## 2.2 無鱗魚類

鱖魚：靑鱖 靑加五里(청가오리, 청가부리), 墨鱖 俗名 墨加五里(묵가오리, 흑가부리), 鷹鱖 俗名 每加五里(매가오리, 매가부리)

海鰻鱺：海鰻鱺 俗名 長魚(장어), 海大鰻 俗名 弼長魚(봉장어), 犬牙鰻 俗名 介長魚(개장어, 갯장어) 장어가 사는 장소가 그 명명의 연유가 된다.

海鮎魚：海鮎魚 俗名 迷役魚(미역어) 메기와는 다른 어류이다. 紅點 俗名 紅達魚(홍달어), 長點 俗名 骨望魚(골망어)

鮪魚：黔鮪 俗名 黔服(검복), 鵲鮪 俗名 加齒服(가치복, 까치복) 복의 모습과 색깔이 까치와 흡사한 데에 그 명명의 연유가 있다, 齒魚鮪 俗名 加七服(가칠복, 까칠복) 복 겹질의 촉감을 알 수 있는 명칭어이다. 小鮪 俗名 拙服(졸복)

## 2.3 雜類

黑笠鯪 俗名 比末(비말), 布紋蛤 俗名 蟹質岳(반질악, 반지락), 蚶 俗名 庫莫蛤(고막조개, 고막), 淡菜 俗名 紅蛤(홍합)

이상에서 보면 한자 어명의 접미사는 모두 '-魚'인데 비해서 차자 어명의 접미사는 '-魚, -峙, -峙魚, -叱, -機, -里' 등으로 다양하며, 어린 어류의 명칭어에 붙는 접두어로는 '甫-'가 차용되고 접미어로는 '-里'가 차용되었다.

- 魚 : 民魚, 富世魚, 黃石魚, 秀魚, 乞德魚, 甘相魚, 多億道魚, 臯登魚, 海八魚, 高來魚, 道尾魚, 畢巖魚
- 峙 : 巖峙, 甫九峙, 毛峙, 閑塞峙
- 峙魚 : 蠶峙魚, 遜峙魚, 望峙魚, 綱峙魚, 孔峙魚, 葛峙魚
- 伊類 : 艾羽叱, 曹機, 北諸歸, 畢巖伊
- 里 : 登其里
- 甫- : 甫九峙, 甫鱸魚

<茲山魚譜>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어류 명칭어의 어원을 추구하려는 어원 의식이 드러나 있으나 고유어마저 한자나 한역하여 표기한 점이 아쉽다. 그러나 당시의 어류 속명을 차자로 현실음에 가깝게 표기하고자 했으며 접미사 등은 생략하여 표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류명에 대한 차자표기와 그 속명에 대한 유래는 다른 지역어의 방언 어류 명칭어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 III. 慶北 東南 方言 魚類 名稱語의 類型

#### 3.1 '-치'형 어류 명칭어

'-치'는 어류명 어미의 일반적 정형으로 함경, 평안도 방언 '-티'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葛峙:刀魚'에서와 같이 '-치(峙)'는 '-어(魚)'와 대응이 된다. 그래서 '치'는 '魚'의 개념을 표시하고 있다. 해수어와 담수어에서 '-치'의 어미가 보이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해수어 : 칼치 흥치 넙치 모치 준치 미래치/멸치 보리멸치 고래멸치(속 보이는 고기) 한치 장치 병치 자갈치 콩치 학꽂치 쫄대래치 고래치 날치 미역치 빼달치 맨치/뺑치 수치 쥐치/지치까치 월남까치 등

담수어 : 가물치/가무치/가모치/가문치/까물치/갈무치/감어치/나뭇치/마물치 가살치(취리) 묵치/먹치(피라미) 꺾치 넘덕치(납줄개) 버들납치 버들치 버들먹치 버들무치 버들어치 버들몽치 꼬들몽치 기름치 새알치 뿌꿍치(동사리) 불망치 빠꾸마치 새

치 설치/술치/술치 누치 노랏치눌치 누루치 모래무치 봉치 수치 준치 강준치 등

칼치는 그와 근사한 형태의 物名인 칼에 비유되었다. 이와 같이 어류의 형태를 그와 근사한 물명으로 나타낸 것으로는 ‘학꽂치(학처럼 부리가 길다), 쥐치, 월남까치, 고래멸치, 고래치(고래처럼 배가 희고 회색이다), 쫘다래치, 버들치, 새알치, 뺨치’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월남까치는 고기의 무늬가 얼룩무늬 복장과 유사한데서 연유된 것으로 월남전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어휘로 분류된다. 어류의 성질과 그 형태를 반영한 명칭어로는 ‘넙치, 장치, 날치, 까치, 기름치, 버들납치, 모래무치’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장치는 뱀장어처럼 생긴 고기를 말하고, 까치는 이 고기의 등에 까사(가시)가 많다는 데서 붙여진 명칭어이며, 버들납치는 이 고기가 버들잎처럼 납작하게 생긴 데서 그 명칭이 연유된 것이다.

고기의 색을 반영한 명칭어로는 ‘홍치, 가물치, 목치, 불망치, 누치, 노랏치, 누루치, 버들떡치’등을 들 수 있다. 홍치와 불망치는 붉은색, 가물치와 목치 그리고 버들무치는 검은색, 누치와 노랑치 그리고 누루치는 노란색을 반영한 명칭어이다. 지역이나 주변 환경을 반영한 명칭어로는 ‘자갈치, 미역치, 수치, 버들몽치, 강준치(‘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듯이 값나가는 고기이다)’ 등을 들 수 있다. 자갈치는 바닥이 자갈인 데서 살고, 미역치는 미역 주위에서만 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어이다. 그리고 버들몽치는 강버들가지의 덩굴밑에서 잘 놀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의해 붙여진 명칭어이다. 수치는 2차 담수어라서 해수어와 담수어에 모두 존재한다.

어떤 형태에 붙는 ‘-치’는 해수어 명칭어보다는 담수어 명칭어에서 더 생산적으로 쓰이고 있다. ‘-치’형이 붙는 ‘칼치, 모치, 날치, 수치, 쥐치, 가물치, 격치, 넙덕치, 삐꾸마치’와 같은 물고기는 대체로 품성이 거칠고 역세며 힘이 세다.

### 3.2 ‘-어’형 어류 명칭어

魚는 물에 사는 물고기의 모양을 본딴 글자이다. 고려시대의 <鷄林類事>에는 ‘魚曰水脫’ 또는 ‘魚肉皆曰姑記’의 기록이 있다. 후자에서 魚와 肉을 구별하기 어렵지만 ‘魚/肉皆’로 보아 ‘魚’는 전자의 ‘水脫’ 즉 ‘물’(水)는 訓讀하여 ‘물’이 되고, ‘脫’은 ‘水’의 訓 ‘물’의 末音添記字 ‘ㄹ’로 解讀됨)에 대응되고 ‘肉皆’는 ‘姑記’ 즉 ‘고기’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魚肉皆’는 ‘물고기’로 해독된다. 오늘날도 육개는 일반적인 고기를 일컫

지만,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할 때의 ‘고기’는 물고기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해수어와 담수어에서 ‘-어’의 접사가 보이는 어류 명칭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해수어 : 방어 청어 문어 장어 뱀장어 실뱀장어 칠성장어 칠공뱀장어 용장어 복어  
전어 병어/뱀어 꼼장어 망상어 오징어 갑오징어 황어 광어 병어 송어 상어 홍어 다  
랑어 연어 민어 고등어 등

담수어 : 선둥어(갈겨니) 황둥어(돌마자) 뱀장어 궁장어 용장어 백조어 광어(자가  
사리) 색붕어 오색붕어 각시붕어 기생붕어 꽃붕어 반달붕어 바디붕어 버들붕어/해  
방어 팔붕어 모래사장어 불붕어 부죽어 향어 사등어 솔직광어 송어 해방송어 붕어  
잉어 열목어 황금붕어 백조어 육침어 색붕어 각시붕어 열목어 등

장어의 형태가 뱀과 유사하다고 하여 핵심어 장어에 왼쪽 덧붙는말 뱀을 붙여 뱀장어의 명칭어가 생겼고, 뱀장어의 어린 것이 실과 유사하다고 하여 뱀장어에 왼쪽 덧붙는말 실을 붙여 실뱀장어의 명칭어가 생겼다. 뱀장어와 유사한 칠성장어는 양 옆에 일곱 개의 구멍이 있기에 뱀장어에 덧붙는말 칠공을 붙여 칠공뱀장어의 명칭어가 생겼다. 오징어와 등에 뼈가 있는 갑오징어도 이와 같은 류에 속한다. ‘병어’는 ‘아까사끼’와 같이 일본말로 오염되어 부르기도 한다.

꽃붕어는 붕어의 색깔이 아름다운 데서 연유된 것이고 반달붕어, 바디붕어는 붕어의 형태와 지느러미의 생김새가 각각 반달과 베짜는 바디와 흡사한 데서 연유된 것이다. 팔붕어는 핵심어 붕어에 작다는 의미의 지소사 팔을 붙여 명명한 것이다. 버들붕어는 1급수에서 자라는 강버들까지 아래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그 모양이 버들잎처럼 생긴데서 연유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핵심어에 왼쪽 덧붙는말을 붙여 계층적인 하의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방어(魴魚)의 행동은 점잖아서 신사에 흔히 비유되어 쓰이기도 한다. 송어가 없는 지역에서는 붕어를 송어라고 부르고 있어 대상과 명칭어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에는 작은 물고기를 지칭하는 송사리, 눈챙이가 있다. ‘뱀장어/궁장어’는 해수어와 담수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명칭어이다.

접미사 ‘-어’는 해수어에서는 한자어 뒤에 붙고(오징어는 한자어로 烏賊魚), 담수어에서도 주로 한자어 뒤에 붙는다. ‘-어’형이 붙는 ‘방어, 문어, 광어, 민어, 고등어, 궁장어, 백조어, 붕어, 송어, 열목어, 버들붕어’ 같은 물고기는 대체로 품위가 있고 고급스러우며 희귀하고 유익하며 계절성과 관계가 있다.

### 3.3 '-이'형 어류 명칭어

'-이'형에는 다시 '-기', '-디기', '-지기', '-지', '-리', '-미리', '-미', '-앙이' 형으로 하위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대체로 흔한 고기 이름에 붙는 접미어이다.

#### 1) -기

해수어 : 조기 열기 놀래기 이놀래기/예놀래기(아름답고 힘이 세다) 쥐놀래기(쥐처럼 겁고 두 귀가있다) 꼬추놀래기 사배기 해떼기 돌매기 도루부기/도루매기 빼달기 호르래기(작은 오징어) 바다매기 섬벌꼭대기(해떼기의 큰놈) 감자부치기

담수어 : 갈딱매기/갈딱미기/뿔딱미기 납매기 납조라기/납지라기 뉘디기 뉘자라기 버들넙치기/버들넙데기 우르기/우리기 감빠기 야기 늘기 먹어지기(피라미) 버들무기 풍태기 중태기 준태기 논두렁뺨대기 조꼰디기 끈들매기(기름종개) 꼬시래기 미꾸래기

놀래기는 그 주변 환경에따라 색깔이 변하는 보호색을 갖고 있다. '꼬추놀래기,예놀래기'는 꼬추처럼 붉고 예쁜 색을 띤 물고기를 지칭하는 말이다. '사배기'는 '사백어'에서 물고기를 지칭하는 접미사 '어'가 '이'로 대체되어 '사백이'로 되고 다시 연음화되어 '사배기'로 변했다. '호르래기'는 작은 오징어를 한 번에 호르락 먹을 수 있기에 붙여진 명칭어다.

'-데기'형을 갖는 명칭어로는 '해떼기, 납데기, 뉘디기, 버들넙데기, 조꼰디기' 등을 들 수 있다.

#### 2) -지

해수어 : 풋조지/풀조지기 낙지 격지 물보지(말미잘의 비어) 방곤지 너물장지 빼달구지 모래무지돈지 노란돈지 야지

담수어 : 양어조지(쉬리) 먹지/먹어지(피라미) 불거지 종지 격지 꼰딱지 모리사지 기름종지 범미꾸라지 사발미꾸라지 얼룩미꾸라지 꾸구락지 꼬시라지 미꾸라지/비꾸라지/미꾸라지 자갈미꾸라지 수수미꾸라지 싸리미꾸라지 말미꾸라지 호리미꾸라지

'풋조지/풀조지기'는 해초속에서 살며 움켜잡으면 배쪽에서 생식기가 길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어다. '불거지'는 '불거리'와 '먹지'의 혼태형으로 발정기에 이른 피라



미 수컷의 화려한 혼인색인 붉은색과 그 주변의 검은색을 지칭하여 합성한 명칭어이다. '기름종지, 사발미꾸라지'는 종지거나 사발 그릇으로 어구를 만들어 잡을 수 있기에 붙여진 명칭어이다. '꾸구락지'는 '꾸구꾸구'하며 소리를 낸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어이며, '호리마꾸라미'는 색깔이 표범의 무늬처럼 알록달록하기에 붙여진 명칭어이다.

3) -이(-양이)

해수어 : 매이 들매이 땅매이 떡매이(큰놈) 보리매이 복쟁이/보글쟁이 쫓쟁이 온돌이 감쟁이 엮걸이 구새이(성개) 구로다이 꼬추골뱅이/맷다골뱅이 찻골뱅이 삼식이 딸쟁이 눈티이 먹충이 쪽깨이 뽕지이 바다까지이

담수어 : 눈굴쟁이(갈겨니) 눈검쟁이(눈이 크고 검은 갈겨니) 먹쟁이 신통이(돌마자) 짜뱅이(풀조디) 북조디이 남조래이 남줄갱이 왕눈이 눈쟁이 눈쟁이 딸쟁이 윤쟁이 배무쟁이 뱀쟁이 미꾸래이 빠꾸매이 춤쟁이

'떡매이'의 '떡'은 크지만 볼품없고 가치없는 것을 지칭하는 접두어이다. '보글쟁이'는 이 고기를 잡아두면 배가 저절로 부풀어 오르거나 아이들이 입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으면 배가 많이 부풀어 오르기에 붙여진 명칭어이다. '쫓쟁이'는 비어로서 이 고기를 움켜 잡으면 생식기가 길게 돌출되기에 붙여진 명칭어이며 지식이 없고 웅맹만 있는 사람에 비유되어 쓰이기도 한다. '엮걸이'는 고기를 엮어서 걸여 말리는 데에서 연유된 명칭어이다. '꼬추골뱅이'에서의 '고추'는 골뱅이의 맛이 고추처럼 맵기 때문에 붙여진 왼쪽 덧붙는말이다. '먹충이'는 먹을 것만 찾는 <자산어보>에서의 '墨乙蟲(묵을충)'과 같은 물고기로 분류된다. '눈쟁이, 눈쟁이, 윤쟁이'는 눈이 튀어나온 송사리[目高]를 지칭한다. '구새이, 구로다이'는 일본말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4) -미

해수어 : 까재미 꺼겘까재미 구들빼온까재미 모래까재미 둔지까재미 물까재미 꼬꾸래미 돛미 돛대미 납새미 통미 우뚝통미 돌재미 노래미 슬래미

'꺼겘까재미, 구들빼온까재미, 모래까재미'는 앞에서 언급한 온돌이와 함께 가자미가 방구들장처럼 거칠고 검다는 데서 연유된 명칭어로 이 가자미는 지금 희귀한 물고기로 분류된다. '꼬꾸래미'는 말릴때에 꼬꾸라진다(꼬부라진다)고 하여 명명된 것이다. '우뚝통미'는 검은 줄무늬가 있어 우뚝하게 잘 드러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어이다. '돌재미'는 돌

주변이나 들더미에 붙어 사는 물고기이며, ‘술래미’는 암수가 번갈아 가며 숨어 있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데서 연유된 명칭어이다.

## 5) -리

해수어 : 양미리/영미리 저리 노가리 가우리 오동가오리/혹가오리 땡땡가오리 해파리 닥바리 뺑차리/뺑조리(적돔, 칠돔 새끼) 삼버리(통미 새끼) 너바리 황어사리 매가오리(가오리연처럼얇음) 미주구리 참도다리 아구다리/아우다리 이시가리 깎도보도리(꽃조지 새끼) 뽕주구리/뽕구리 납닥바리 뼈더리 저리 눈까파리 정어리 박대加里 텅수리

담수어 : 쉬리 가사파리/가사리 가산파리 가살파리 가삼파리 가새파리 가생파리 가쇠파리 가수파리 가시개파리 가시내파리 가시피리 가재파리 가족파리 팔파리 밀파리 보리파리 쇠파리새파리 소피리(참물개), 갈겨니/갈겨리/갈가리(가리를 하는 피라미)/갈겨리/갈써저리 불가리/불겨리 가을피리 개피리 광대파리 광피리 대피리 더불피리 산피리 잔피리 참파리 청피리 꽃피리(혼인색으로 물들은 수컷 피라미) 능금파리 땅꾸구리, 자가사리 갈로리 갈우리 과리 덩거리 덩구리 명가리 탕가리 텅수리 텅바리 텅사리 바가사리 빠가사리 째개사리 하나리, 피라미 강파리/쟁파리 냇물피리 무지개파리 찬피리 물피리 고추피리 비다파리능금파리 먹피리 색피리 술피리 흑피리 먹구리 먹어리 버드리 뚱피리(맛없는 버들치) 산피리(산골 1급수에서 사는 버들치) 준파리 송사리 우리 동사리 구구리 꾸구리 뚜구리 뿌구리 뿌주구리 떡미리 양미리 중미리 미꾸리/미꼬리/뚱그리 논미꾸리 새코미꾸리 수꾸리 호랑메꾸리 까부리(헤엄칠 때 지느러미를 유별나게 흔들어 대는 봉어)

‘닥바리’는 몸을 숨기고 머리를 내민 모습이 흡사 닭발톱 같다는 데에 명명의 연유가 있다. ‘너바리’는 지역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른데, 영덕읍에서는 ‘너마리’, 경정리에서는 ‘뼈달구지’, 대부리, 창포리에서는 ‘너바리’, 노물리에서는 ‘너물쟁지’라고 부른다.

‘-사리’는 ‘송사리, 은어사리, 황어사리, 빠가사리, 버들사리, 동사리’처럼 작은 고기를 지칭하는 접미어이다. ‘미주구리’는 끈끈하고 빨리 죽어 축 퍼지기 때문에 용맹없는 사람에 비유되기도 한다. 미꾸리는 몸통이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뚱그리’라 하고 미꾸라지는 몸통이 납작하기 때문에 ‘납작이, 납재기’라고 한다. 미꾸리는 ‘뺏[漚]+글(집사)+이(집사)’로 분석되며, ‘뺏그리>뺏구리>뺏꾸리>미꾸리’로 변천했다. 또한 미꾸리는 입으로 들어온 공기 일부를 창자에서 호흡을 하고 가끔 수면으로 올라와 항문으로 기포를 방출하기 때문에 ‘밀이 구리다’는 의미에서 ‘밀구리, 뺏구리’가 ‘미꾸리, 미꾸리’로 변천했다는 민간 어원설도 있다.

‘납닥바리’는 물고기가 작은 범처럼 무섭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며 ‘눈까

파리'는 몸을 숨기고 눈만 깜빡거리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어이다. 부정확한 종감별로 말미암아 어린 담수어를 모두 송사리라 하고, '버들개, 긴물개, 참붕어, 버들치'를 모두 '버들피리'라 부르기도 한다. '쉬리'와 '피리/피라미' 그리고 '갈겨니'는 그 외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쉬리'의 단어족과 '피리/피라미'의 단어족 그리고 '갈겨니'의 단어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뿌구리, 텅수리'는 해수어와 담수어에 모두 있는 명칭어로 뿌구리는 이물고기가 '뿌굴뿌굴' 소리를 낸다고 하여 그 소리를 흉내내어 붙여진 명칭어이다. '동사리'는 '동꼬, 톱꼬' 등으로 일본말로 부르기도 한다.

### 3.4 '-오/-우'형 어류 명칭어

해수어: 풀초 미역초 식초 가새초 까짱오 아구 대구 꺾떠구/꺾짜구/꺾짜구/꺾따구/꺾뚜구불꺾따구 갈떠구/꺾따구 꺾저구 아나구 히라수 사이루 까자구 이매수/이명수 딸짜구/딸짜우/꺾짜구 개방구 뚱뺱라구(꺾떠구 새끼) 뽕라구 지누 꺾따구(바다메기 새끼)

담수어: 논지름자구 먹주구(피라미)

'풀초, 미역초, 식초 가새초'는 해초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이다. '사이루'는 '학꽂치'에 대한 외래어의 다른 이름이며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물고기이다. '꺾따구'는 '꺾짜구'가 와전된 명칭어인 동시에 '바다메기 새끼'를 지칭하기도 하여 이름은 같지만 다른 종류의 어류를 지칭하고 있다. 또한 '꺾떠구'가 와전된 '꺾짜구, 꺾따구, 딸짜구'의 '딸짜구'는 영덕 축산리에서는 민물고기의 '송사리'를 지칭하기도 하며 영덕읍에서는 민물고기의 '긴물개'를 지칭하기도 한다.

### 3.5 '-고기'형 어류 명칭어

해수어 : 호미고기/호매이고기 속보이는고기 자갈치고기 뽕간고기 까치고기/취고기 땅쏘는고기 깜빡고기

담수어 : 갈치고기(쉬리) 문둥이고기(돌마자) 중고기 사발고기 활미고기(동사리) 꿩고기 쌀고기(돌고기) 보리고기 물총고기 가시고기 침고기/칭고기 까치고기 큰가시고기 육침고기 호랑이고기 방매이고기 해방고기 돌고기

‘호미고기’는 말리면 농기구 호미처럼 굽어진다고 하여 명명된 것이다. ‘빨간고기’는 색깔이 단지 빨간색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어이다. ‘깜빡고기’는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데에 명명의 연유가 있다. ‘-고기’는 음절수가 비교적 많고 ‘속보이는고기, 땅쏘는고기’처럼 수식하는 말 뒤에 붙어 복합어를 형성하는 명칭어이다. ‘자갈치고기, 까치고기, 갈치고기’는 ‘-고기’가 생략되어 ‘자갈치, 까치, 갈치’로 불리기도 한다. ‘쥐고기’에서의 ‘-고기’는 ‘-치’로 대체되어 ‘쥐치’로 더욱 많이 불리고 있다. ‘중고기’는 어리석고 비늘이 없는 ‘버들치’를 중에 비유하여 명명한 것이다. ‘콩고기’는 아주 작은 뿌구리 새끼를 ‘콩’에 비유한 명칭어이고, ‘방매이고기’는 그 모양이 방망이처럼 생기데에 그 명명의 연유가 있다. ‘해방고기’는 ‘버들붕어’이며 해방이 되던 무렵에 많이 발견되었기에 그 시대를 반영하여 명명한 것이다.

### 3.6 기타

해수어 : 정승 물곰/곰이 불곰 검등곰 참돔 직돔 칠돔 깨돔 간성돔/감성돔 흑돔 우럭 양태 명태 대보 머라/밀하(화어사리, 황어사리) 먹통 따잠 은단

담수어 : 연애각시 연어각시 은어각시(취리) 돌마자 돌모래무지 돌모래미 돌무리 기 돌사무지 돌요리 돌노구리 납줄개 기름종개 참몰개 꼬치동자개 송해 새치내/쇠치내 부산가시내 묵보 영국신사

‘정승’이란 물고기는 머리가 굉장히 크고 벗겨진 것같이 보이기에 벼슬자리에 있는 정승이란 인물에 비유하여 명명한 것이다. ‘물곰’은 바다메기를 지칭하는 말이다. ‘칠돔’은 고기의 색깔이 일곱 동갈로 되어 있기에 붙여진 명칭어이다. ‘깨돔’은 검은깨알 같은 검은 점이 있는 돔의 종류이다. ‘먹통’은 ‘한치’의 다른 이름이다. 어리고 예쁜 물고기에 ‘-각시’라고 하는 오른쪽 덧붙는말을 붙였다. 그리고 돌 주변 혹은 돌무더기 밑에서 사는 물고기는 ‘돌-’이라는 접두어를 붙이고 있다. ‘부산가시내’는 뿌구리나 빠꾸마치처럼 흐르는 물의 돌에 악착같이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데에 그 명명의 연유가 있다. ‘영국신사’는 누치의 물고기가 미끈하게 잘 생긴 데에서 그 명명의 연유를 찾을 수 있으며 시대성을 반영한 어류 명칭어이다. ‘송해’는 붕어를 일컫는 명칭어로 송어가 없는 지역에서 이름을 빌려 다른 종의 물고기를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방언 어류 명칭어가 유통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 IV. 마무리

이상에서 경북 동남 지역(영덕 지역을 중심)의 해수어(바닷물고기)와 담수어(민물고기)의 어류 명칭어를, 접미되는 몇 개의 어형별로 구분하여 방언 어류 명칭어의 유래를 고찰하였다.

먼저 어류 명칭어의 어형별 분류와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鷄林類事>의 ‘魚曰水脫’와 ‘魚肉皆曰姑記’의 기록에서 ‘어왈물’, ‘어육개왈고기’의 ‘어육개’는 ‘물고기>물고기’로 해독된다.

2. 漢字魚名은 접미사가 ‘-魚’이나, 借字魚名의 접미사는 ‘-魚, -峙/-治, -峙魚, -機, -里, -伊’ 등으로 다양하다.

3. 어류 명칭어는 ‘-치’ 형, ‘-어’ 형, ‘-이’ 형, ‘-오/-우’ 형, ‘-고기’ 형, 기타로 분류되며 ‘-이’ 형이 우세한 편이다.

4. ‘-치’ 형이 붙는 물고기는 대체로 품성이 거칠고 역세며 힘이 세다.

5. ‘-어’ 형이 붙는 물고기는 해수어에서 대체로 품위가 있고 고급스러우며, 담수어에서는 희귀하고 유익하며 계절과 관계되는 어류명이 많다.

6. ‘-이’ 형은 다시 ‘-기, -자, -양이, -미, -리’ 형으로 하위 구분되며, ‘-기’ 형에는 다시 ‘-데기, -디기, -지기’ 로 분류된다. 접미사 ‘-이’는 대체로 흔한 물고기에 접미된다. 이 접미사가 붙는 물고기는 대체로 사람과 친숙한 어류들이다.

7. 해수어보다는 담수어에서 다양한 접사가 사용되고 있다.

8. 접두어로는 어린 물고기를 지칭하는 차차표기 ‘甫-’와 ‘콩-, 팔-’이 있고, 큰 것을 지칭하는 ‘떡-’이 있다.

다음은 어류 명칭어의 명명법과 그 유래에 대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류 명칭어의 명명은 비유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 비유는 주로 은유인데 생활 주변의 기물, 동물, 식물에 의한 시각성, 촉각성, 가치성 등의 그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어류의 형태를 그와 유사한 다른 물명으로 명명한 것, 어류의 습성을 가지고 명명한 것, 어류의 색으로 명명한 것 등으로 하위 구분된다.

둘째, 訛音이나 轉音으로 인해서 한 단어족내에서의 어휘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셋째, 어류 명칭어에 대한 어원의 이질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언형을 보이고 있다.

넷째, 유추에 의한 어휘가 많다. 미꾸라지에서 땅꼬라지, 가시고기에서 까치로 바뀐 예를 들 수 있다.

다섯째, 부정확한 종감별로 인해 잘못 사용되고 있는 어휘가 더러 있다. 붕어를 송어, 작은 고기를 모두 눈쟁이 혹은 송사리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러한 예들이다.

여섯째, 같은 종이라도 어린 것과 다 자란 것, 작은 것과 큰 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로는 ‘뽕지-복어, 섬버리-통미, 호르래기-오징어, 똥빨라구-꺼뚜구’ 등을 들 수 있다.

일곱째, 시대상을 반영한 어휘로는 ‘월남까치, 해방고기, 해방어, 영국신사’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방언 어류 명칭어에 대한 지역별 역사 전체를 세밀히 조사 연구하여 서로 영진 어류 명칭어의 단어족을 하나하나 풀어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 참 고 문 헌

곽재용(1994), “유해류 역학서의 ‘신체부’ 어휘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 논문.

권계선(1980), “이두 문자 ‘叱’ 考”, 남광우 박사 회갑기념 논총.

김주원(1994), “18세기 황해도 방언의 음운현상”, 국어학 24, 국어학회.

김철남(1993), “-이’ 파생명사의 통시성”, 동아어문논집 3집, 동아어문학회.

남광우(1962), “<왜어유해> 연구”, 어문논집 2, 중앙대학교.

박종갑(1992), “날말밭의 관점에서 본 의미변화의 유형”, 영남어문학 제 21집, 영남어문학회.

손병태(1996), “鄉藥 藥材名의 國語學的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 논문.

송기중(1985), “<몽어유해> 연구”, 역사언어학, 전예원.

오종갑(1989), “18세기 후기 국어의 표기법 연구”, 인문연구 제 11집 1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여찬영(1990), “우리말 동물명칭어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제 13집, 효성가톨릭대학교.
- 여찬영(1994), “우리말 물고기 명칭어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제 9집, 효성가톨릭대학교한국전통문화연구소.
- 이상규(1986), “방언자료 처리 방법”, <문학과 언어> 7.
- 이승녕(1984), “이조 초기 魚類에 관한 어휘론적 고찰”, 학술원 논문집 23집.
- 이은규(1993), “<鄉藥救急方>의 국어학적 연구”, 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 논문.
- 이종성(1993), “[술[酒] 명칭에 관한 낱말발 연구”, 牛岩어문논집 3호, 부산외국어대학교.
- 최명옥(1979), “동남방언의 연구와 검토”, <방언>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홍순탁(1963), “<茲山魚譜>와 黑山島 方言”, 호남문화연구 제 1집, 전남대학교호남문화연구소.
- 홍윤표(1985), “국어 어휘 문헌 자료에 대하여”, 소당 천서권 박사 화갑기념 국어학 논총.